

2026. 1. 19.(월) 조간 (온라인 보도) 2026. 1. 18.(일) 12:00

기후위기와 고령화가 바꾼 재난지도... '정교한 대응'으로 맞선다

- 소방청, 2025년 소방활동 분석... 화재 1.9% 증가, 구조 9.2%·구급 1.2% 감소
- 잦은 비로 '벌집제거' 출동 뚝...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는 12% 급증
- 60대 이상 이송환자 58% 육박할 때, 10세 미만은 11.2% 큰 폭 감소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난 현장의 양상을 뚜렷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10,654,902건 일평균 29,192건 접수 (전년 대비 6.2% 감소)	 화재 38,341건 일평균 105건 발생 (전년 대비 1.9% 증가)	 구조 1,197,158건 일평균 3,280건 출동 (전년 대비 9.2% 감소)	 구급 3,285,002건 일평균 9,000건 처리 (전년 대비 1.2% 감소)
---	--	--	---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 501건으로 하루 평균 1만 2,385건의 현장 활동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468만 731건) 대비 약 3.4% 감소했지만, 분야별로는 기후와 인구 변화에 따라 대조적인 증감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화재·구조·구급 출동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화재	38,857건	37,614건	38,341건
구조	1,309,614건	1,318,837건	1,197,158건
구급	3,486,526건	3,324,287건	3,285,002건
소방활동 합계	4,834,997건	4,680,738건	4,520,501건

□ 119 신고 및 화재·구조 활동: 날씨가 출동을 바꿨다

(119 신고) 지난해 119신고는 총 1,065만 4,902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화재 신고는 늘어난 반면, 구조·구급 및 대민출동 신고는 줄어들었다.

< 2025년 119 신고 현황 >

- (화재) 412,822건 / 전년 392,603건 대비 **20,219건(5.1%) 증가**
- (구조) 835,919건 / 전년 909,419건 대비 **73,500건(8.1%) 감소**
- (구급) 3,007,171건 / 전년 3,020,815건 대비 **13,644건(0.5%) 감소**
- (대민) 808,385건 / 전년 832,849건 대비 **24,464건(2.9%) 감소**

연도별	합계	현장 출동 관련 신고				안내	유관 관 이 첩	장난 전화	오접속	무응답	기타
		화재	구조	구급	대민 출동						
2025년	10,654,902	412,822	835,919	3,007,171	808,385	2,930,551	109,033	112,796	643,956	286,797	980,797
2024년	11,354,928	392,603	909,419	3,020,815	832,849	3,247,403	122,366	115,892	857,118	641,375	088,750
증감(%)	△6.2	5.1	△8.1	△0.5	△2.9	△9.8	△10.9	△2.6	△10.8	△19.4	6.4

(화재)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 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방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다. 소방청은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 2025년 화재활동 현황 >

- (화재건수) 38,341건 / 전년도 37,614건 대비 **727건(1.9%) 증가**
- (인명피해) 2,736명 / 전년도 2,402명 대비 **334명(13.9%) 증가**
- (사망) 346명 / 전년도 308명 대비 **38명(12.3%) 증가**
- (부상) 2,390명 / 전년도 2,094명 대비 **296명(14.1%) 증가**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2025년	38,341	2,736	346	2,390
2024년	37,614	2,402	308	2,094
증감(%)	1.9	13.9	12.3	14.1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전년 대비 1.4%(232건) 증가하며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학적 요인 화재가 16.7%(161건)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화재 발생 원인 분석 >

구분	계	부주의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방화	자연적	미상	교통사고	기타
2025년	38,341	17,155	11,194	3,626	1,127	588	359	3,136	428	728
2024년	37,614	16,923	10,588	3,823	966	696	346	3,051	400	821
증감(%)	1.9	1.4	5.7	△5.2	16.7	△15.5	3.8	2.9	7	△11.3

화재 사망 요인으로는 부주의 화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96명, 27.8%),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도 전년 대비 17.5%(10명) 증가했다.

<2025년 화재 사망 원인 분석 >

구분	계	미상	부주의	방화(의심)	전기	제품결함	교통사고	기타	기계	그외
2025년	346	96	96	43	67	0	17	6	6	15
2024년	308	69	66	60	57	24	14	5	6	7
증감(%)	12.3	39.1	45.5	△28.3	17.5	△100	21.4	20	0	114.3

*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자(26명) 사망 요인 '부주의'로 집계

(구조) 반면, 구조 활동은 전년 대비 9.2%나 크게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 였다. 통상 구조 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별집 제거' 인데, 지난해 가을철(9~10월)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별의 활동이 위축되어 별집제거 출동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 2025년 구조활동 현황 >

- (출동건수) 1,197,158건 / 전년도 1,318,837건 대비 **121,679건(9.2%) 감소**
- (처리건수) 807,409건 / 전년도 887,119건 대비 **79,710건(9.0%) 감소**
- (구조인원) 107,639명 / 전년도 114,988명 대비 **7,349명(6.4%) 감소**
- (평균건수) 1일당 평균 3,280건 출동, 2,212건 처리, 295명 구조
1분당 평균 2.3건 출동, 1.5건 처리, 0.2명 구조

구분	출동건수	처리건수	구조인원	1일 평균			1개 구조대당 평균 처리건수(건)
				출동(건)	처리(건)	구조인원(명)	
2025년	1,197,158	807,409	107,639	3,280	2,212	295	2,794
2024년	1,318,837	887,119	114,988	3,603	2,424	314	3,070
증감(%)	△9.2	△9.0	△6.4	△9.0	△8.7	△6.1	△9.0

□ 구급 활동: 폭염과 저출산·고령화의 그늘

(구급) 구급 이송 건수는 전년 대비 1.2% 소폭 감소했으나, 환자의 유형과 연령대에서는 사회적 변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짧은 장마 뒤에 찾아온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 이송은 전년 대비 12%(336명)나 급증하여, 심화되는 기후 위기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2025년 구급활동 현황 >

- (출동건수) 3,285,002건 / 전년도 3,324,287건 대비 **39,285건(1.2%) 감소**
- (이송건수) 1,733,003건 / 전년도 1,790,794건 대비 **57,791건(3.2%) 감소**
- (이송인원) 1,748,084명 / 전년도 1,807,486명 대비 **59,402명(3.3%) 감소**
- (평균건수) 1일 평균 9,000건 출동, 4,748건 이송, 환자 4,789명
1분 평균 6.3건 출동, 3.3건 이송, 환자 3.3명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 평균			1대당 평균 이송환자(명)
				출동(건)	이송(건)	환자(명)	
2025년	3,285,002	1,733,003	1,748,084	9,000	4,748	4,789	1,049
2024년	3,324,287	1,790,794	1,807,486	9,108	4,906	4,952	1,089
증감(%)	△1.2	△3.2	△3.3	△1.2	△3.2	△3.3	△3.6

(연령별 분석)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구급 현장 통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60대 이상 노년층 환자는 102만 1,423명으로 전체 이송 환자의 절반 이상(약 58.4%)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반면, 10세 미만 소아 환자 이송은 5만 3,977명에 그쳐 전년 대비 11.2%나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이송 감소 폭(3.3%)보다 3배 이상 큰 수치로, 어린이 인구 감소가 소방 구급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이송환자 연령대별 분석 >

구분	합계	10세 미만	10대	20~30대	40~50대	60대	70대 이상
2025년	1,748,084	53,977	70,934	234,791	366,959	307,692	713,731
2024년	1,807,486	60,804	74,538	249,787	395,197	320,786	706,114
증감(%)	△3.3	△11.2	△4.8	△6.0	△7.1	△4.1	1.1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2025년 소방활동 데이터는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가 재난 안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진형민 (044-205-7610)
		담당자	소방위	홍종덕 (044-205-7563)
담당 부서 (신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책임자	과 장	김학근 (044-205-7070)
		담당자	소방경	김향선 (044-205-7075)
담당 부서 (화재)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5-7470)
		담당자	소방경	임영채 (044-205-7476)
담당 부서 (구조)	소방청 구조과	책임자	과 장	박 현 (044-205-7610)
		담당자	소방위	김경세 (044-205-7618)
담당 부서 (구급)	소방청 119구급과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담당자	소방위	김고은 (044-205-7634)